

2017년 9월 12일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여러분들께,

저는 이민자의 딸로서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전직 교사이자 교장으로, 모든 구성원들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이 안전하고, 환영 받으며 존중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뉴욕시 학교 성공의 기본 중 하나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동기 입국 불법체류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종료 계획에 대한 백악관 성명은 우리 뉴욕시의 많은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과 평등함, 그리고 상호존중에 대한 우리의 이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곳이 될 것임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우리가 교육하는 모든 어린이와 그 가족 및 모든 교직원들을 지위에 관계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머(Dreamer)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DACA 수혜자 본인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드리머를 알고 계신다면, 뉴욕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법률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nyc.gov/DACA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DACA에 관한 안내문도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칠 때, 저는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서로의 다름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적극 격려 하였으며, 교육감이 된 후에도 각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들은 존중 받아야 하고 소외되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DOE)은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뉴욕시 학생들 가정에 봉사하기 위해 굳건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민 및 세관 단속청(ICE)을 포함한 연방 요원들은 법에 의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DOE)에서는 교직원이나 학생의 체류신분을 알아보지 않으며, 법으로 절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청은 가르치고 배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각 가정과 교사들에게 제공 가능한 지원에 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SupportingAllStudents>.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인내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대화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뉴욕시로서 단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Carmen Fariña
교육감 올림